

인조이 EPL

선덜랜드 애덤 존슨의 몰락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재판 진행중  
결국 팀에서 방출·스폰서 계약도 해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공격수 애덤 존슨(29·사진)이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속팀에서도 쫓겨나 파문을 낳고 있다. 선덜랜드는 11일(한국시간) "존슨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존슨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강등권 경쟁 중이라 선수 한 명이라도 더 잘실한 선덜랜드지만, 존슨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도 이에 앞서 존슨과의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존슨은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꿉친구 당시 15세 소녀 팬과 만남을 가졌다. 소녀는 경찰에서 "존슨의 오래된 팬이었다"며 "존슨이 SNS를 통해 나에게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말해 만나러 갔고, 처음에는 존경했던 선수와 소통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러나 존슨이 차 안에서 나에게 성관계를 유도하는 식으로 접근했고, 당시 내 나이를 알았음에도 연락이 왔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당시 존슨의 여자친구 스테이시 파운더스는 만삭인 상태였으며, 현재는 딸을 출산해 파운더스에게도 안타까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파운더스가 재판장에서 존슨의 결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아무리 딸이 있다고 해도 죄인 결을 지키는 여자친구도 이해가 안 간다"는 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존슨과 소녀 사이에 오간 2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공개되면서 존슨은 문제가 된 4차례의 성적 행동 중 2건에 대해 인정할 상태다.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들즈브러 유스 아카데미를 거친 존슨은 2005년 3월 당시 최연소 타이인 17세의 나이로 유럽축구연맹(UEFA)컵 본선 경기에 출전해 화제가 됐다. 2010년 맨체스터시티 입단 후 73경기에서 11골을 기록했고, 2012년부터 선덜랜드에서 활약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에두-전북 가계약’ 경쟁 몰린 용병 3총사

(레오나르도·루이스·로페즈)

전북 외국인 보유해도 풀...에두 조건부 합류  
레오나르도·루이스·로페즈 생존경쟁 불가피

‘브라질 골잡이’ 에두(35)가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로 컴백한다. K리그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16일 "최근 허베이 중지(중국)와 결별한 에두가 전북과 가계약했다. 다만 합류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 전북 유니폼을 입고 뛰던 에두는 50억원을 크게 웃도는 거액의 이적료를 안겨주고 중국으로 떠났으나, 슈퍼리그(1부)로 승격한 허베이가 올 겨울이적시장에서 대대적인 보강에 나서며 설 자리를 잃었다. 제르비뉴(코트다부아르), 가엘 카루타(프랑스), 스테판 음비아(카메룬) 등이 합류한 허베이는 14일 에두와 결별을 알렸다.

자유계약(FA) 신분인 에두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제2의 고향과도 같은 K리그로 눈을 돌린 뒤 전북, 수원삼성과

협상을 했다. 에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원(40골·15도움)에서 뛰며 정규리그 챔피언(2008년)을 경험했고, 전북에선 반년간 활약하며 11골·3도움을 기록하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수원과의 협상은 잘 풀리지 않았다. 조건 등에서 이견이 컸다. 수원은 이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에두가 최종적으로 전 소속팀(전북)과 계약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발표했다.

결국 전북만 남았다. 그러나 당장 영입은 어려웠다. 이미 외국인선수 보유해도 4명(아시아쿼터 포함)을 채운 상황에서 '조건부 합류'가 전북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도쿄(일본)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일주일 전인 16일까지 제출한 대회 출전선수명단(30명)에 에두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FC는 대회 8강 이전(8월)에 또 한 번의 명단 교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에

두의 합류시기가 좀더 빨라질 수 있다. 소속이 없는 FA 선수는 새 팀을 찾아 등록할 수 있다. 용병은 빈 자리만 나오면 된다. 만약 전북이 에두를 여름이적시장(7월) 이전에 데려올 경우,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 잘 버티면 AFC에도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자연스레 관심은 아시아쿼터로 영입된 에릭 파탈루(30)를 제외한 나머지 브라질 공격 트리오는 경쟁으로 쏠린다. 전북은 기존 레오나르도(30), 루이스(35)에 더해 겨울이적시장에서 제주 유니타이트에서 뛰던 로페즈(25)를 추가 보강했다. 지난해 11골·11도움(33경기)을 올린 로페즈와 10골·3도움(37경기)을 기록한 레오나르도가 지난해 하반기 합류해 1골·2도움(16경기)에 그친 루이스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마지막 순간 누가 생존할지는 선불리 예단할 수 없다. 더욱이 서바이벌 게임에 내몰린 3명이 전부 폭발적인 활약을 펼친다면 에두의 영입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에두 ▶

평가 재건 꿈꾸는 울산 현대, 심리 전문가와 합숙

선수단 분위기·경기력 향상 큰 도움

일본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 중인 울산 현대는 16일 우라와 레드(일본)를 상대로 2차례 연습경기를 치렀다. 팀을 2개로 나눠 진행한 이날 경기에서 3-2, 2-1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전훈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울산은 17일 귀국한다.

울산은 올해 특별한 전훈을 진행했다. 스포츠심리학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축구 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 여자축구대표팀을 담당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윤영길 교수가 가고시마에서 일주일간 울산 선수들과 함께 지냈다.

울산은 지난해 선수단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 코칭스태프와 선수간의 소통에 아쉬움이 따랐다. 그러나 이번 전훈에서 진행한 스포츠심리학 강의 덕분에 선수단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이러한 부분은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고, 전훈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밑거름이 됐다. 이는 구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울산은 새 시즌을 준비하며 선수단에 큰 변화를 줬다. 팀의 두 중심축이었던 스트라이커 김신욱과 골키퍼 김승규가 각각 전북 현대와 빙셀 고베(일본)로 이적했다. 이들

이 떠난 자리에는 국가대표팀 공격수 이정협과 베테랑 골키퍼 김용대를 영입했다. 이들 2명 외에도 김인성, 서명원, 박성호, 이기재 등을 데려와 전력에 대거 보강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바뀌어 팀 색깔 자체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간의 내부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일본 J리그에서 자도자로 오랜 기간 머물다 지난해 K리그로 돌아온 울산 운영환 감독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울산과 함께한 첫 시즌에는 한국프로축구 현실에 대한 감각도 부족했고, 선수에 대한 정보도 충분치 못

하다보니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겪은 윤 감독은 확 달라졌다.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대화를 통해 팀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 상위스플릿(1~6위) 진출에 실패했던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 윤 감독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은 이번 겨울을 성공적으로 보낸 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수 영입에서도, 전훈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울산은 제2의 창단이라고 불릴 만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평가 재건을 꿈꾸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 끝)이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를 개회할 선언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생활축구연맹회와의 통합 이후 시행될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축구협회, 생활축구팀 통합 정관 개정안 승인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생활축구연맹회와의 통합 이후 시행될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관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축구연맹회의 통합 총회에서 승인되면 정관으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합 이후 조직 명칭은 '대한축구협회'가 되고, 생활축구연맹회에선 대의원과 회장 선거인단이 분리 운영된다. 기존에는 대의원만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대의원이 포함된 회장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된다. 새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축구연맹, 홍보마케팅팀장에 김재형 씨 선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K리그 마케팅 수석 중대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김재형 씨를 홍보마케팅팀장으로 선임했다. 김 팀장은 200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중계방송권, 스폰서십,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업무와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신규구단 창단 실무 등을 담당했다.

볼비어, K리그 9개 구단 '볼비어걸' 운영 합의

K리그 공식 맥주 볼비어(BallBeer)는 16일 2016시즌 울산, 성남, 포항 등을 포함한 K리그 9개 구단과 후원을 협약하고 볼비어걸 운영에 합의했다. 볼비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중이 편리하게 맥주를 구입하게 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볼비어걸'과 함께하는 국내프로축구 응원문화 조성에 힘을 예견했다. 2015시즌 포항, 성남, 인천, 안산, 제주에서 운영했던 '볼비어걸'은 축구장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팬 서비스로 눈길을 끌며 큰 호응을 얻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사커 피플 | 엔벤 박태하 감독이 말하는 슈퍼리그 & 축구한류

“팀 향한 애정·조직력은 우리가 최고”

슈퍼리그 생존 위해선 더 빠른 예측 필요  
국내 지도자 중국행...한국축구 인식 UP

창단 51돌을 맞은 엔벤 부덕의 2015년은 화려했다. 중국프로축구 갑(甲·2부)리그 정상에 올랐으며 16년 만에 슈퍼리그(1부) 진입에 성공했다. 가장 유력한 올(乙·3부)리그 강등 후보, 소수민족이 주축을 이룬 변방의 클럽이 올린 엄청난 성과를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축구광'으로 소문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보고를 받을 정도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엔벤 박태하(48) 감독의 주가도 치솟았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과 슈퍼리그의 여러 팀이 러브 콜을 보냈고, 중국축구협회는 갑리그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박 감독은 자신에게 프로 감독 경력의 출발을 선물 해준 팀에 남았다. 2년 연장계약으로 의리를 지켰다. 중국프로축구 최고의 무대에서 새 시즌을 맞는 박 감독을 엔벤 선수단의 3차 동계 전지훈련지 제주 서귀포에서 만났다.

●슈퍼리그

구름 위를 걸었던 지난해, 엔벤은 폭풍질주를 했다. 정규리그 21라운드까지 무패를 내달리며 승승장구했다. 박 감독은 "구단 행정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털어놓았다.

그랬다. 박 감독은 부임 후 2가지를 구단에 요청했다. ▲쾌적한 원정 환경 ▲확실한 영양 관리 등이었다. 중국은 이렇다 쉽지 않다. 대륙 북동부 끝자락의 엔벤에서 서부나 남부를 왕복하려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시즌 초반부에 4경기 이상을 계속 원정으로 다녀야했기 때문에 선수단 컨디션 관리는 필수였다. "좋은 전력을 꾸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철저한 휴식이다. 쾌적한 숙소에서 지내면서 영양섭취를 잘해야 몸을 관리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쉬 선수들은 최상의 성과를 냈다. 시즌 초반부를 잘 버티자 뿌리 깊은 패배의식도 털어낼 수 있었다. 자신감이 불고, 제대로 탄력을 받은 엔벤의 적수

는 없었다. 좋은 성적에 지원이 뒤따랐다. 시즌 종료 후 중국 3대 보편사인 부덕그룹과 약 400억원대의 메인스폰서 계약을 했다. 구단 창단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소중한 자금으로 김승태(25), 윤빛가람(26) 등을 영입했다. 이를 한국에선 '광폭 투자'라 부르며 다소 시샘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슈퍼리그 전체로 시선을 돌리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광저우 에버그란데, 베이징 귀안 등은 물론 엔벤과 나란히 슈퍼리그로 승격한 허베이 중지도 유럽무대를 누빈 세계적 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엔벤의 예산으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선수들이다. 그러나 박 감독은 이에 굴하지 않는다. "축구는 11명이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명쾌한 답변을 했다. "이름값만 보면 우린 0-10으로 져야 한다. 그런데 축구는 묘하다. 팀을 향한 애정과 조직력이다. 빅리그를 뛰었다고 다리가 3개 달린 건 아니다. 민족 특유의 열정과 끈기도 있다. 명확한 소속감도 있다."

●축구한류

오히려 박 감독은 다른 부분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텀포다. '빨리빨리'가 여기서도 꼭 필요하다. 갑리그 시절, 좀 떨어지는 기술은 충분히 커버가 됐다. 그런데 슈퍼리그는 기술 이상으로 스피드가 중요시된다. "세계적 선수들의 속도와 리듬을 따라잡으려면 철저히 안정된 수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상대보다 떨어지는 신체조건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선 더 빠른 생각과 예측도 필요하다. 예상과 동시에 움직이는 반사신경을 키워야 거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엔벤이 보유한 한국인 3총사의 활약도 절실하다. 지난해 갑리그 득점왕(26골) 하태근(29)부터 윤빛가람, 김승태의 부임이 크다. 다행히 나쁘지 않다. 슈퍼리그의 많은 팀들이 '키&러시' 전략을 주로 쓴다. 최상급 외국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 볼을 길게 차넣고 해결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많다. 엔벤은 2선 공격과 공간 침투, 중원의 패싱 플레이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태근은 슈퍼리그의 많은 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충분히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1부)로 승격된 엔벤 부덕 박태하 감독은 지난해 중국축구협회 선정하는 갑리그(2부)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그는 구단과 2년 연장계약으로 의리를 지켰다.

서귀포 | 남정현 기자

검증됐다. 윤빛가람의 세밀한 전진 패스와 정확한 타이밍에서 이뤄지는 김승태의 공간침투능력 등에 거는 기대가 크다. 3명 모두 K리그 톱클래스의 기량을 지녔다."

박 감독은 황저우 그린타운 흥명보(47) 감독, 충칭 리판 장의룡(67) 감독 등 국내 지도자들의 연이은 중국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당연히 긍정적이었다. "중국축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한국 지도

자들이 대거 진출했다는 것은 우리 축구를 향한 높은 인식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 감독과의 만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순 없지만, 이 건 우리만의 경쟁이 아니다. 세계적 명장들도 급세 포기하곤 하는데, 이곳에서 소신껏 하겠다.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패배가 이뤄질 수 있어도 당당히 도전하겠다. 잔류든, 그 이상의 성격이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니다. 제자들의 잠재력을 믿는다." 서귀포 | 남정현 기자